



사망률 개선 속도 둔화의 영향

김유미 연구원

영향

세계적으로 사망률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사망률 개선 속도가 둔화되고 있음. 사망률 개선 정도는 생의학적 요인 외에도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보건의료정책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음. 사망률 개선에 따른 장수리스크의 증가는 보험회사의 부채 가치 및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으므로 사망률 예측 시 다양한 요인에 근거하여 충분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함

- 세계적으로 기대수명이 증가하고 있으나 최근 일부 선진국에서는 사망률 개선 속도(Mortality Improvement, 'MI')가 둔화되고 있음¹⁾
 - 전반적인 생활여건의 향상과 의료기술의 발전은 심장질환 및 뇌졸중의 조기 진단, 순환기계통 질환 등의 사망률을 감소시켜 사망률 개선에 크게 기여하고 기대수명을 증가시킴
 - 2011년 이후 미국, 영국, 독일을 포함한 선진국의 연령 표준화 사망률²⁾은 여전히 감소하고 있으나, 지난 10년에 비해 사망률 개선 속도는 둔화되고 있음
- 사망률 개선 정도는 생의학적인 요인 외에도 사회경제적, 개인의 행동·특성 및 보건의료정책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음
 -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사회경제적 여건 개선이 용이해지고 건강한 생활방식을 채택할 확률이 높아져 고혈압, 심장병 등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감소하고 사망률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남³⁾
 - 보건의료정책 확대를 통한 의료접근성의 향상은 취약계층의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미국의 경우 1965년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가 도입되면서 노인과 빈곤층의 사망률이 크게 개선된바 있음
 - 반면, 경기 침체에 따른 공공의료비 지출 감소와 공공사회서비스 축소 등은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음

1) Swiss Re(2018. 12), "Mortality improvement: understanding the past and framing the future"
 2) 연령표준화 사망률(Age-Standardized Death Rate)은 인구구조가 다른 집단 간의 사망 수준을 비교하기 위해 연령별 인구구조가 사망률에 미치는 영향을 제거하여 계산한 값임
 3) OECD(2016), "Society at a Glance 2016"

고 이로 인한 영아사망률, 정신질환 등의 문제를 야기하여 사망률 개선 둔화로 이어질 수 있음

- 국가 경제수준에 따라 사망률에 미치는 요인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데 개발도상국의 경우 영양실조 및 공중보건위생 등에 의한 순환기계통 및 전염성 질병이 주요 사망 원인이나 선진국의 경우 흡연, 음주 및 식습관, 운동 부족 등 생활방식에 따른 대사 장애, 암과 난치성 만성질환이 주요 사망 원인임
 - 선진국에서는 과거보다 개인의 행동 및 특성 위험 요인이 중요해진만큼 흡연·음주 관련 캠페인, 건강증진프로그램 등의 행태변화를 유도하여 사망률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 장기적으로 사망률 개선이 점차 둔화되어 수렴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일 수 있으나, 그 시기나 정도는 국가별 상황,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미국은 공중보건정책 및 1차 의료에 할당된 자원이 상대적으로 적고, 최근에는 높은 비만율과 자살·약물 남용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증가하여 기대수명이 2년 연속 하락세를 보임⁴⁾
 -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⁵⁾ 미국은 마약성 진통제인 Opioid 남용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2016년에 약 6만 4천 명으로 전년 대비 21%나 증가하여 전체 사망률이 상승하였으나, 독일은 Opioid의 사용률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약물남용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증가하지 않음
- 한 국가의 의료발전은 주변 국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데 2011년 이후 과거 유럽의 공산주의 국가들(슬로바키아, 폴란드, 헝가리 등)은 유럽 회원국의 경제 회복세로 인해 사망률이 크게 개선된바 있음

■ 사망률 개선에 따른 기대수명의 증가는 장수리스크를 증가시켜 보험회사의 부채 가치에 영향을 주므로 최근 사망률 개선 둔화가 일시적인 현상인지 추세적인 흐름인지 충분한 분석이 필요함

- 사망률 개선에 따른 장수리스크 증가는 연금보험의 부채 가치 및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으며, 개선 추세가 장기간 반영될 경우 연금부채 규모가 과대평가될 수 있음
 - OECD 따르면 사망률이 개선되어 기대수명이 1세 증가하면 보험회사가 추가적으로 충당해야 할 준비금이 현재 수준의 약 3~5%일 것으로 분석함
- 따라서 사망률 예측 시 과거 사망률 데이터 외에도 사망률 개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생활수준 및 방식의 변화, 보건의료정책 및 의료기술발전 등 다양한 요인에 근거하여 충분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함 **kiri**

4) OECD(2018), "OECD Health Statistics 2018"

5)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2018. 3), "U.S. drug overdose deaths continue to rise; increase fueled by synthetic opioids"